

<2017년 3월 8일 수요말씀>

실천하며 ‘주의 길’을 예비해라

본 문 에스겔 4장 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〈실천〉은 ‘실체’를 만들고 ‘신비’를 창조한다.

〈하나님의 말씀을 실천〉하면 ‘사탄과 악’이 사라진다.

라는 주제로 ‘실천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했습니다.

◎ 오늘은 〈잠언〉으로 말씀하다가,

이어서 섭리역사가 <2015년 휴거 역사>를 이루기까지의 기간 중

<최고 핵심 기간이었던 ‘10년’>에 대해서

한 번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〈잠언〉으로 시작하겠습니다.

◆ 누구나 처음부터 ‘완전’에 이르지 못한다.

시행착오를 겪으며, ‘완전’에 이르게 된다.

- ◆ <완전>을 알고 ‘완전의 차원’에 올라도 그 차원을 지속하는 것이 잘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.

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‘완전의 차원’을 존재시켜라.

- ◆ <순리>로 해야 ‘술술’ 된다.
- ◆ 존재하고 있어도 안 쓰면 ‘보람’이 없다.
- ◆ <자기 혼>이 존재하고 있는데 안 쓰면,
육에게 ‘혼으로 인한 보람’이 없다.
- ◆ 혼과 대화, 영과 대화다.
그리고 주와 대화, 삼위와 대화다.
- ◆ <혼의 세계>에서는 ‘혼’이 더 유리하고,
<육의 세계>에서는 ‘육’이 더 유리하다.

고로 <육>도 쓰고 <혼>도 써야 양단으로 유리하게 된다.

- ◆ 사람이 상황에 따라 <발>로 할 것은 ‘발’로 하고
<손>으로 할 것은 ‘손’으로 하면 이상적이듯,
<혼>으로 할 것은 ‘혼’으로 하고
<육>으로 할 것은 ‘육’으로 해야 이상적이다.
- ◆ <혼>으로 하되, 결국 <육>에게 전달하여 ‘육’이 해야 된다.
단, <육>이 해도 ‘혼’이 함께 해야 된다.

◆ <육과 혼>은 ‘뇌의 생각과 육의 지체’가 하나이듯 하나다.

◆ <육>이 ‘혼’에게 책임을 졌어도 착오가 생길지 모르니,
<육>이 살피며 같이 해야 된다.

<육>이 해도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<혼>이 살피며 같이 해야 된다.

◆ 책임을 졌어도 <혼자>서는 착오가 생길지 모르니,
<영>에서 도우며 같이 살피기다.

◆ <육, 혼, 영> 이 셋은 ‘언제나 교통’이다. ‘대화’다.
<교통과 대화>는 항상 ‘육’이 먼저 이끌어야 된다.

◆ <육>이 ‘육, 혼, 영의 교통과 대화’를 이끌려면,
항상 주의 말씀을 뇌에 새기며 주와 일체 된 생각을 가지고
<삼위와 주>와 교통하고 대화하면서
<자기 혼과 영>과도 교통하고 대화해야 된다.

◆ <육과 혼>이 일체 되어 발전해야 <자기 영>이 더 변화되고 발전한다.

<육>이 실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고
<육>이 실천하면 실천한 대로 언듯이,
<육의 실천>으로 ‘혼과 영’도 더 좋게 변화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 <설교>로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육신>이 실천하지 않으면 맞는지, 아닌지 헛갈립니다.

그래서 ‘실천’ 해야 됩니다.

<실천>하면 ‘답’ 을 알게 됩니다.

- ◆ 처음 가 보는 ‘천연 굴’ 이 있는데,

<들어가는 실천>을 안 하면 ‘그 모양과 형상’ 을 알 수가 없습니다.

궁금하면, 들어가 보면 됩니다.

그러면 ‘굴의 모양과 형상’ 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됩니다.

그리함으로 ‘답’ 을 알게 됩니다.

이와 같이 실천하면 알게 됩니다.

- ◆ <실천하는 자>만 ‘선과 악’ 도 알게 되고,
‘장점과 단점’ 도 알게 됩니다.

- ◆ <축복>이 앞에 있어도, <얻을 것>이 앞에 있어도,

<희망과 보람과 기쁨>이 앞에 있어도

<실천>해야 ‘자기 것’ 이 됩니다.

빨리 실천하면 빨리 얻고, 늦게 실천하면 늦게 얻습니다.

- ◆ 빨리 판단하고 빨리 실천하여 얻고 누리기입니다.

그러나 그냥 빨리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뭐든지 <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>을 가지고 해야

빨리, 올바르게,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 얻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기성의 생각>으로는
<기성에서 말한 하나님의 새 역사>를 찾지 못합니다.

왜 그럴까요?

<기성의 주관권>에서는 ‘그 이상’은 절대 못 보기 때문입니다.
이것이 ‘생각의 원리와 이치’입니다.

- ◆ <기성에서 가르치는 이론과 진리>를 가지고서는
<기성 주관권>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.

고로 <기성 주관권 안>에서는 한 명도 스스로는
<하나님의 성약역사 새로운 뜻과 때>를 깨닫지 못합니다.

성경말씀에 ‘하늘의 천사들’도 모르고, ‘아들’도 모르고,
오직 ‘하나님’만 아신다고 한 대로
<성약의 새로운 뜻과 때>는 ‘기성 주관권의 주인’도 모릅니다.

오직 <하나님>만 아시고,
<새 시대에 보낸 자, 새 시대 주관권의 주인>과 함께 행하십니다.

고로 <새 시대에 보낸 자>만 ‘새 역사의 주인’이 되어
<성약의 뜻>을 압니다.

그가 ‘성약의 뜻’을 알고 세상에 ‘복음’을 전함으로
사람들도 알게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이 보낸 자>가 아니면, 천하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.
- ◆ 절대자 삼위일체는 <그>를 ‘자기 육’으로 쓰면서,

이 세상에 ‘목적한 바’를 행하시며 ‘목적’을 이루십니다.

<그>는 ‘삼위일체가 택한 가장 합당한 자’이며,

<삼위일체>는 ‘그의 육’을 가지고 ‘뜻’을 펴 나가십니다.

- ◆ <나무>는 ‘열매’를 보고 알지요?

<삼위가 보낸 자>도 ‘전하는 말씀과 행실’을 보고 압니다.

그리고 ‘해 놓은 것’을 보고 압니다.

<사과나무>는 ‘사과 열매’만 열듯이,

<삼위가 보낸 자>는 ‘생명과 구원과 휴거의 열매’를 엽니다.

고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.

나무가 작으면 ‘무슨 나무’인지 몰라보지만,

시간이 갈수록 크면서 알아보게 되지요?

이와 같이 <보낸 자>도 <새 역사>도 처음에는 몰라보지만,

시간이 갈수록 ‘때’를 맞추고 ‘뜻’을 이루니 드러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목적’을 이루면서 가는데,
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

천 리 길도 ‘한 번’에 갑니까? ‘한 걸음’씩 갑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의 새 역사>도

한 번에 모두 다 가르쳐 주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,

역사를 두고 차원을 높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.

고로 가는 만큼, 따르는 만큼만 알게 됩니다.

- ◆ <새 역사>를 따르다가 중간에 나가면, 거기까지만 압니다.

자기가 따른 데까지만 보고 듣고 살아 보고서는

<하나님의 새 역사>도 <보낸 자>도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.

- ◆ 산을 올라도 ‘자기가 오른 데까지’ 만 알듯이,
새 역사 주를 만났어도 ‘자기가 따른 만큼, 행한 만큼’ 만 압니다.

<하나님이 목적>을 주셨어도 ‘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자’ 만
알고, 얻고, 목적을 이루고, 누리게 하셨습니다.

- ◆ 중간까지만 따라오다가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
거기까지만 알지, 그 이후는 더 모릅니다.

<휴거>까지 다 알고 섭리사를 나갔다 하는데, 아닙니다.

그 말씀은 <그때 휴거의 말씀>에 불과합니다.

<그때 밝힌 육적 차원의 휴거의 말씀>입니다.

그때는 <휴거의 근본의 핵>은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지금부터 ‘휴거의 때’ 에 대해 말씀할 텐데, 잘 듣기 바랍니다.
미리 말씀해서 알고 있지만, 한 번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<휴거 역사>는 **2012년부터**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준비했습니다.
그때 ‘휴거의 근본의 핵과 비밀’ 이 밝혀졌습니다.

그때 ‘성령의 역사’ 가 뜨겁게 일어나면서

데살로니가전서 4장 16~17절에 나오는 <영 휴거>를

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‘육’ 도 ‘영’ 도 단장했습니다.

1차 2012년, 2차 2013년, 3차 2014년

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면서

<성자>께서 ‘휴거의 핵’을 밝히고

<성령>께서 ‘성령의 불’을 주시며 단장하게 하셨습니다.

- ◆ 2012년에서 2014년까지 **3년**이 지나고,
보낸 자가 땅에 온 지 70년이 되던 해,
성자가 육신 쓰고 땅에 오신 지 70년이 되던 해인
2015년 3월 16일에 ‘영 휴거 잔치’를 하셨습니다.

이로써 <성경>을 이루고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었습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때>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.
어긋남이 없습니다. 틀리지 않습니다.
- ◆ <새 역사 주>를 따라도 ‘바짝’ 따르지 않으면 모릅니다.
<몸>만 바짝 따르면 옆에 있어도 모르고, 봐도 모릅니다.
<생각과 사고와 행실>이 주와 일체 되어 바짝 따라야 합니다.
- ◆ 이때는 ‘섭리사 최고 환난 기간인 **10년**의 때’였습니다.

2008년에 <시대 보낸 자>가 ‘선고’를 받은 후,
1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‘**전 3년**’을 보내면서
극적인 환난을 받으며 <휴거의 비밀>을 밝히기 시작하고,
2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‘**후 3년**’을 보내면서
본격적으로 <영 휴거 단장>을 시작했습니다.

이렇게 ‘**6년**’ 만에

<성자>는 <보낸 자>와 함께 <휴거 역사>를 행하셨습니다.

<끝나는 수> ‘6’ 으로 역사하셨습니다.

- ◆ 축소하여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듯이,
확대하여 6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역사를 펴며 차원을 높이다가
섭리역사 극적인 환난의 때 6년 동안 핵적으로 휴거를 준비시키고
<휴거>로 ‘창조 목적’ 을 이루고 만족하셨습니다.

- ◆ 복직된 하와의 생일 3월 13일이 지나고 3일 후인 3월 16일!
역시 ‘6, 끝나는 수’ 에 <휴거>를 이루셨습니다.

- ◆ <6수>는 ‘끝나는 수’ 로서
<하나님 편>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끝장내는 수이며,
<사탄 편>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수입니다.

완전히 끝장내려면, 육신 쓰고 사는 한
계속해서 ‘말씀을 실천’ 하며 ‘휴거의 삶’ 을 살아야 됩니다.

- ◆ 2008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년을
- <세상>에서는 ‘환난’ 으로 보나,
- <하늘 편>에서 볼 때는
보낸 자가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살려 주는 기간입니다.

고로 이 기간은 ‘휴거를 위한 영광의 기간’ 입니다.

- ◆ 10년 중의
- 2008년 ‘1년’ 은 시대가 어떠한지 보았고,
- 1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‘3년’ 은
보낸 자가 세상을 위해 극적인 희생의 조건을 세웠고,

- 2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‘3년’은
시대를 따르는 자들에게 휴거를 준비하는 영광의 기간을 줍니다.
- 이 기간이 지나고 2015년 3.16부터 2018년 2월까지 ‘3년’은
<휴거>가 끝나고 삼위께 영광 돌리며
개인·가정·민족·세계의 죄를 청산하고,
삼위와 주와 같이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고,
휴거의 삶을 살면서 ‘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간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후에 다시 만났어도
〈육〉이 죽었으니 〈영〉으로만 만났지만,
이 시대는 〈육〉도 〈영〉도 살았으니
〈육〉으로도 다시 만나서 남은 역사를 진행합니다.

항상 완전하게 하려면, 〈육〉도 〈영〉도 다 살아야 됩니다.
- ◆ 신약 때는 하늘 편에서
〈육〉이 희생하여 죽어 주고 〈영〉이 살아서 했으니,
재림 때는 또 〈육〉이 죽어 주지 않습니다.

재림 때는 〈영〉도 살고 〈육〉도 살아서
시대를 위해 희생해 주고 고통을 당하면서
세상의 쫓값을 해결해 주고 끝납니다.

그러면서 ‘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이룹니다.

<이 기간>이 곧 **계시록 2장 10절**에 나온 대로
“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.” 하는 기간입니다.

<하루>를 ‘1년’ 으로 계산한 ‘10년의 기간’ 입니다.

- ◆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,
『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‘40일’의
<하루>를 ‘1년’으로 쳐서 ‘40년’간 죄악을 담당하라.』 했고,

에스겔 4장 6절을 보면,
『그 수가 차거든
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.
내가 네게 ‘사십 일’로 정하였나니
<하루>가 ‘1년’이니라.』 했습니다.

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도 보낸 자가
<하루>를 ‘1년’ 으로 하여 ‘10년’ 동안
극적으로 희생의 조건을 세우며 세상의 죄를 감당했습니다.

계시록 2장 10절 말씀같이 되었습니다.

- ◆ 중국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나느냐고 하니,
하나님은 “계시록 말씀처럼 **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.**
<하루>는 ‘1년’ 이니라.” 하셨는데
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.

- ◆ 중국에서는 <하루>를 ‘한 달’ 로 하여
정확히 ‘10개월’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.

8개월이 되던 때에 곧 끝난다고 하면서도 안 끝나고,

하나님의 말씀대로 ‘10개월’ 이 돼서야
모든 것이 다 끝나고 결정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

- ◆ <사람이 행한 일> 같지만,
이 세상은 ‘하나님의 세상’ 이니 결국 ‘하나님’ 이 다 행하십니다.

그러나 사람들은 ‘사람의 생각’ 으로 생각하니,
하나님이 ‘뜻’ 을 두고 행하셔도 모릅니다.

- ◆ 이 세상은 ‘하나님의 세계’ 입니다.

고로 보낸 자는 매일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
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며 드립니다.

- ◆ 하나님은 절대 ‘주권’ 을 뺏기지 않으시고,
오직 ‘하나님의 뜻’ 대로 행하시고 목적을 이루십니다.

고로 잘되고 형통하며 뜻을 이루려면,
전능자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.

- ◆ 새 역사 최고 극적인 기간 10년!
그중에서 2015년 3.16부터 2018년 2월까지 ‘3년’ 은
<휴거>가 끝나고 삼위께 영광 돌리며
개인·가정·민족·세계의 죄를 청산하고,
삼위와 주와 같이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고,
휴거의 삶을 살면서 ‘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간’ 입니다.

이 ‘3년’ 이 거의 다 가고, 이제 ‘1년’ 이 남았습니다.
어떻게 살아야 할지, 이제는 ‘여러분의 몫’ 입니다.

자기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생명을 구원하고,
진정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‘주의 길을 예비’ 하기를 축원합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